

결국은 제살 파먹는 저작권 과당경쟁

미국소설 「모레」 로열티 국내업계 경쟁 탓 7천불서 20만불로 급등

최근 미국의 한 무명작가가 쓴 소설을 우리 출판사가 국내 출판사상 최고의 저작권료인 20만달러(한화 1억6천만원 상당)에 사들여 출판계를 놀라게 했다. 이번 계약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보통의 수입소설 로열티의 30배나 되는 파격적인 금액이 지불됐기 때문이다. 이를 둘러싸고 출판계 안팎에서는 요즘같은 불황에 이같은 계약이 성사된 것은 국내 출판계의 과당경쟁이 빚은 소모적 저작권 계약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한국독자들로부터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는 시드니 셸던의 책도 1만달러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무명작가의 첫소설에 대한 저작권료로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가 많다.

우리 출판계에 충격을 주고 있는 이 책은 미국 출판가에서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른 소설. 이 작품의 작가는 미국에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TV 드라마작가 출신의 알란 폴섬으로 그의 데뷔작인 「모레」(The Day After Tomorrow)는 미국의 저명 출판사인 리틀 브라운사와 워너 북스사가 공동으로 캐나다 판권까지를 포함해 2백만달러(한화16억원)에 정식계약해, 미국내에서 데뷔작에 지급된 최고의 원고료(중전기록 1백25만달러)기록을 갱신하는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출판도 안된 상태에서 영화판권이 MGM사에 150만달러에 팔리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화제작.

이 소설은 新나치주의자들이 미국과 유럽을 무대로 벌이는 음모를 미국의 한 의사가 파헤친다는 줄거리를 추리소설 형식에 담은 국제 스틸러물로만 알려져 있는데, 계약당사자인

최근 미국서 등단작품에 지불된 사상 최고의 원고료란 기록을 세운 무명작가 알란 폴섬의 미스터리소설 「모레」가, 국내의 한 출판사에 의해 20만달러에 수입돼 출판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파격적인 저작권료 지불로 인해 화제가 되고 있는 이번 계약에 대해 우리 출판계의 상업출판에 대한 몰이해의 결과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두 출판사는 “상업적 소설의 수준을 한단계 높일 만한 작품”이라고 극찬하며 서둘러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전해진다. 또 미국의 유명서평지 「퍼블리셔스 위클리」(93년 2월 8일자)가 이 작품의 계약과정을 상세히 다룰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책을 국내 출판사인 서적포(대표 박효성)가 국내저작권 중개업체 DRT를 통해 「모레」의 저작권 관리업체인 미국 아론사와 20만달러에 판권계약을 맺고 오는 9월경 미국과 동시출판하기로 한 것.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국내출판사와 에이전시들의 과도한 경쟁이 빚어져 저작권료를 터무니없이 올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데 있다.

미국에서의 화제가 「동아일보」 2월 15일자에 게재되면서 계약을 성사시킨 서적포와 교



사진은 외국의 추리소설이 진열된 교보문고의 수입도서코너.

원문고(대표 장평순), 그리고 포도원(대표 이종철)이 각각 저작권에이전시인 DRT, 신원, 임프리마를 통해 계약을 시도했고, 당초 제시한 금액 7천달러는 1만달러로 금액이 올라가고, 다시 3만달러, 7만달러, 10만달러, 20만달러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지난 3월8일 계약이 성사됐다. 대부분의 거래가 두번째 오퍼에서 결정되는 관례와는 달리 5, 6차례에 걸친 출판사들의 치열한 오퍼가 오고간 끝에 계약이 성사된 것이다.

경쟁원인은 화제작에 대한 우선권 확보

이같이 거래가 복잡해진 것은, 미국의 아론사가 국내출판사들의 경쟁추이를 지켜보고 입찰을 하지 않은 채 각 출판사의 오퍼가격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초가격의 28배로 저작권료가 결정된 데 대해

DRT의 오퍼기씨는 “아론사에게 경매방식이 우리시장의 특성상 적당치 않다는 사실을 전달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9만달러가 제시되면 서부터는 출판사를 설득해 포기시키려는 노력을 했다”면서 “사실 20만달러라는 금액이 과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매과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경매과정상의 하자는 없었음을 강조한다.

또 에이전시가 출판사를 부추켜 과당경쟁을 조장했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DRT측의 입장은 “파격적인 금액임은 인정하지만, 유망한 작가와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줄을 대러는 출판사의 정당한 노력을 막을 수 없었고, 에이전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3만5천달러에서 오퍼를 포기한 포도원을 제외한 서적포와 교원문고가 에이전시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막바지에는

사랑을 배우는 동화

오늘밤 내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 말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그 무엇보다도 아빠는 너를 더 사랑한다, 애야.」



1. 2. 3 시리즈 컬러예화집

짧다! 쉽다! 깊다! 많다!

가슴으로 읽는 현대판 「명심보감」
진실의 광장에서 나눈
대화를 준비하세요!
삶의 지혜와 감동의
寸鐵殺人의 메시지

대림기획
도서출판

서울 중구 을지로 37가 286
TEL : (02) 268-4902
FAX : (02) 277-6946

청소년들이 읽을만한 책

간행물윤리위 선정 권장도서 30종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원홍)가 청소년 권장도서 30종을 선정 발표했다.

- 영혼의 푸른 수첩(정중수) : 동아출판사/B6/164면/4500원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박완서) : 웅진출판사/A5신/304면/4500원
- 마음에 타려는 불 무엇으로 끄려놓고(윤청광) : 언어문화/A5신/290면/4800원
- 키호테 신부(그레이엄 그린/박정근) : 하늘땅/A5신/276면/4500원
- 꿈치(톨스토이/이향희) : 서연/B6/148면/4500원
- 오펜지향은 바람을 타고(클리어 리/양준희) : 미래향문화/A5신/264면/3800원
- 좀머씨 이야기(퀴스킨트/유혜자) : 열린책들/A5신/126면/3800원
- 박종화의 삶과 문학(윤병로) : 서울신문사/A5신/306면/6000원
- 트리깅의 선물(베비트/최순희) : 대교/A5신/204면/5800원
- 감춰진 얼굴(마이클 셸던/김기에) : 성훈/A5신/606면/9000원
- 앵무새 죽이기(하퍼 리/박경민) : 한겨레/A5신/414면/5800원
- 한국화 감상법(박용숙) : 대원사/A5신/134면/3500원
- 역사의 종말(후쿠야마/이상훈) : 한마음/A5신/510면/8000원
- 새로운 동반자 중국 대륙을 가다(박진길 외) : 을유문화사/A5신/310면/4500원
- 동창이 밝았느냐(이어령 외) : 동화출판

사/A5신/354면/5500원

- 일본열도에 흐르는 한국혼(김달수/오문영 외) : 동아일보사/A5신/440면/6800원
- 한국고대문화의 흐름(임효재) : 집문당/A5신/244면/9000원
- 석오 이동녕평전(이현희) : 동방도서/A5신/340면/5500원
- 중국신화전설 1(원가/전인초 외) : 민음사/A5신/740면/17,000원
- 과학의 개척자들(웨버/주관식 외) : 전파과학사/A5신/406면/7000원
- 뿌리깊은 한국의 발명(유대수) : 키출판사/A5신/136면/3000원
- 파브르곤충기 1~8(다이사부로/이종은) : 고려원미디어/A5신/각 260면/각 5800원
- 바다속 이야기(실비아 열/한기찬) : 현암사/A5신/232면/5000원
- 대학생들의 설계(서울대생활연구소) : 서울대출판부/A5신/196면/5000원
- 학문의 즐거움(헤이스케/방승양) : 김영사/A5신/238면/3800원
- 세계사를 바꾼 사람들(마이클 하트/김평옥) : 에디터/A5신/512면/7500원
- 사랑과 지혜의 나무 1·2(안리구/김인심) : 사계절/A5신/268면 내외/각 4800원
- 좋은 말 사전(경동호) : 지문사/A5신/446면/10,000원
- 문화부가 가려뺐은 인물이야기(김병일 외) : 오늘/A5신/198면 내외/각 3500원
-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나타난 띄어쓰기(원영섭) : 세창/A5신/330면/6000원

30만달러, 50만달러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그럴만한 이유는 나름대로 충분하다.

두 출판사의 공통적인 관심사는, 당장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보다 나은 조건에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와 계약을 체결해 우선권을 확보한다는 장기적인 포석일 것이다. 서적포와 교원문고의 내부적 사정도 있다.

먼저 서적포의 경우, 모회사인 삼호필름에서 수입한 영화 「연인」의 원작소설 「연인」을 출판해 10만부 가량의 판매고를 올렸는데, 이 작품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9종의 중복출판을 막을 길이 없었고, 따라서 판매된 총 30만부 가운데 20만부를 놓치는 뼈아픈 체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저작권계약을 맺은 출판물로 승부수를 던진다는 의미도 있으며, 또한 영화를 겸하고 있고, 영화시나리오를 단행본화한 몇종의 책을 내 출판사가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굳어진 이미지를 전환하겠다는 데도 이유가 있는 셈이다.

현재 계약서 작성을 서두르고 있는 서적포의 채윤희이사는 “항간에는 모험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영화업을 통해 쌓은 광고와 홍보에 관한 노하우를 심분 발휘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20만달러에 계약한 「모래」의 손익분기점이 광고비 등을 포함해 20만부 이상을 판매해야 비로소 도달 가능하다는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문고 역시 미국에서 영화와 함께 화제작으로 떠올랐던 작품 「스칼렛」을 지난 90년 당시로서는 최고의 로열티인 6만달러에 수입해 출판에 성공한 전력을 갖고 있어 이번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결국 ‘고배’를

마신 것. 교원문고의 저작권업무를 대행한 신원 에이전시의 김순웅사장은 “가격이 의외의 수준까지 올라갔고, 우리시장에 적당한 작품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 교원문고의 오퍼 중단을 건의했다”고 전한다.

바른 상업출판 인식 정착이 해결 실마리

미국과 한국에서의 동시출판에 앞서 동시화제가 되고 있는 「모래」의 계약건은 우리 출판계와 에이전시업계에 대한 몇가지의 우려와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상업적인 출판물에 대한 지나친 과욕이 표면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인데, 물론 국내에서도 역대의 원고료를 지불받는 작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간지에 실린 짤막한 기사와 요약된 줄거리 정도의 정보만으로 20만달러의 고액을 지불했다는 것은, 기회만 있으면 국내작가 육성을 부르짖는 출판계의 ‘결’과는 다른 ‘속’을 보여준 것 같아 아쉬움을 남긴다.

뿐만 아니라 경매과정에서 드러난 투기성 경쟁은 경쟁 당사자들의 출혈은 물론 다른 소규모출판사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겨주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의 출판사나 에이전시들의 눈에는 한국시장의 규모가 과대평가돼 앞으로의 계약에서 우리측에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가해질 것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급격히 국제화로 치닫는 우리의 상업출판의 추세를 감안해, 보다 공개적이고 뚜렷한 상업출판과 건강한 경쟁의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최태원 기자

책을 만들려면 이 정도의 감각은 필수 아닐까요?

똑같은 재료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음식맛이 달라지듯, 아무리 좋은 원고도 디자이너의 감각에 따라 책 '맛'이 달라진다./ 깔끔한 편집자, 센스 있는 디자이너, 안목 있는 기획자가 꼭 쟁겨야 할 디자인 위크북!

- 디자인의 전모가 한눈에 쑥쑥!
- 전문가는 디지털로, 초보자는 부패처럼 읽어야 할 책!

커트 헝크스, 데이브 에드워즈, 래리 벨리스턴/홍현숙 옮김
신국판/발색인쇄/192면/값5,300원

재미있는 ML 디자인여행 N 여행



세계 미스터리 걸작선 1②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잘 차렸다.

코난 도일 · 아가사 크리스티 · 스티븐 킹 · 체스터튼 · 엘리러 킨... 정통 추리에서 서스펜스, 하드보일드, 정신분석, 사회파에 이르기까지, 미스터리 거장들의 백미가 한자리에 모인 단편추리소설의 진수성찬
정영목 · 정태원 편역/각권5,500원

전화 738-0931 ~ 2/팩스 720-3469
서울·중로구 낙원동 280-4 건국빌딩 1-306호

